

#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2019 / 11·12  
열매소식지

## 특집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

“기독교가 이념 갈등을 해소하려면”(손봉호)

“민주 시민의 교양이 사회 통합의 기초이다”(백종국)

# 버릴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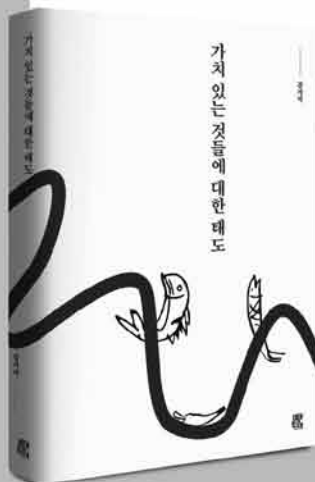
##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



일상에서 애집하는 것,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을 버리고  
조금 덜 갖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연습

초조와 불안, 근심과 원망, 위선과 과시로 얼룩진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  
끝없는 소유욕과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커져만 가는 욕심 그릇을 줄이고  
'우리'와 '저들'을 가르며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는 뒤틀린 태도를 버릴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슬며시 유입된다.

김기석 지음 | 288쪽 | 13,800원



##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

김기석 지음 | 284쪽 | 13,800원



# CONTENTS

특집	<b>“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b> “기독교가 이념 갈등을 해소하려면” “민중 시민의 교양이 사회 통합의 기초이다”	004 007
더 높은 책무성	<b>자발적불편운동</b>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심플리-정직” <b>교회신뢰운동</b> <좋은나무>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비 아프메드 이야기” <b>교회신뢰운동</b> 세번연 성명서 “세습의 길을 터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를 애통해하며” <b>청년운동</b> 나를찾는토요일 4회차 “마음산책: 같이 걸을까?” 후기 <b>전국기운실협의회</b> LA-서울기운실 공동포럼: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도전과 전망,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과 고민” 후기 <b>전국기운실협의회</b> 부산기운실 내부 집담회 “기운실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다” 후기 <b>자치기구</b> 201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기	010 012 015 016 018 020 022
더 깊은 투명성	9·10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023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 활동계획 / 활동스케치(부채상담스터디, 3분기회) 전국기운실협의회 현황 교회와 공간: 공간의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에서 / 청년파티 “N포세대의 취.존.생.활”	024 027 028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강석창 강영안 권장희 김양재 김홍섭 문애란 박재우 박종근 방성기 배종석 송인수 유해신 이문식 이의용 임성빈 정병오 전재중 경애주 정원구 조홍식 주광순 한정화 홍정길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박상배 김경섭 라영환 손인웅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 박선영(바른가치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김진우(상집위원) 김상덕(상집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임낙형(부소장) 성신형 송준인 신원하 이상원 이장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만동(공동위원장) 이재민 이주환 조태례(부위원장) 라창호(교회상 운영위원장) 강정규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현호 두재영 박지영 배성훈 송시섭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원명순 이무영 이영분 장동한 장원종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김홍임(부대표) 김애희(사무국장) 권순홍 김종대 김진우 노명원 서현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연석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김현아 박계민(팀장) 윤신일 조희준 최진호(간사) **전국기운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진주 청주 / (준비지역) 정읍 제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9년 11-12월호 **통권** 273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19. 11. 27  
**편집인** 정병오 **편집** 윤신일 **디자인** 정호연

**보고기간** 2019년 9월 18일~2019년 11월 13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크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기독교가 이념갈등을 해소하려면

지금 한국은 좌파와 우파의 극한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45년 해방 직후의 우익, 좌익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같다. 이런 대립은 좌파, 우파, 그리고 애꿎은 시민들 모두에게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조선조 말기에 조정이 사분오열되므로 나라를 잃고 서로 싸우던 계파가 모두 속국 백성이 된 것처럼 지금의 상황도 생산성 약화와 국력 낭비로 경쟁력을 약화하고 우리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말하자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모래알 같아서 단결할 줄 모른다”고 일본인들이 비웃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비아냥거림에 장단을 잘 맞추고 있다.



글. 손봉호 자문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건설한 시민들의 두려움은 다음 해 총선 때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반영되겠지만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히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시민운동 단체들조차 대부분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어 갈등의 한쪽 편에 서기 때문에 중재와 화합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럴 때야말로 한국의 고등종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고, 특히 한국의 최대종교란 지위를 얻은 기독교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조차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이념적이 되고 말았고, 심지어 그 분열의 선봉에 서서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 때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에 충실했던 보수 교인 상당수가 우파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처럼 기독교가 이념에 근거한 대규모 정치집회를 주도하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윤리적 실패로 사회의 신임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이념논쟁에까지 끼어들어 상처 위에 상처를 더 입고 있다. 한국 교회는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념이란 종교적인 확신으로 변질된 정치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생각하면 이념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다. 철학자 포퍼(K. Popper)가 지적한 대로 이념은 매우 위험한 “열린 사회의 적”이다.

이념 그 자체가 종교적인 확신으로 무장된 것인데 그것이 다시 기존 종교의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독단적으로 되면 견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종교적 순교 정신과 애국정신이 더해지면 어떤 파괴적 행위라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안정과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도 심각한 상처를 가할 수 있다. 서양 교회가 식민지주의에 동조한 것 못지않게 기독교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지금 우파, 좌파에 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날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안탄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념은 그 추종자들에게는 “객관적”이고 “모두를 구원할 진리”이지만 그런 것은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없다. 마르크스도 자신의 이론만 “과학”(Wissenschaft)이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이론은 “이념”이므로 “거짓 의식”(falsches Bewußtsein)이라고 폄하했다. 그런데 그 “과학”은 후에 “이념”의 전형으로 취급되었고 그 “객관적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비참한 삶을 보내야만 했다. 모든 이념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자본주의의 심각한 약점들도 속속 드러나서 계속 수정되고 있다. 인류 대부분이 찬동하고 추구하는 민주주의조차 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심각한 약점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므

로 어떤 정치이론에도 목을 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비도덕이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념의 추종자가 될 수 없다.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므로 좌파, 우파 이념에 목을 매는 기독교인은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조차 적대시하는 것을 보면 이념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함을 알 수 있다. 성경과 보편적 윤리 기준에 의하여 이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이념이 충분히 우상의 지위를 얻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등 종교뿐이고, 가르침의 초월성이나 영향력으로 보아 기독교가 가장 정합하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는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이념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서서 다른 쪽만 고치라고 요구는 한 어떤 중재도, 화합도 이룩할 수 없다. 이념을 상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중재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좌. 우를 초월해서 우파가 강조하는 “자유”도, 좌파가 추구하는 “정의”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탐욕으로 가득 찬 우파의 뻔뻔함”과 “독선에 취해 있는 좌파의 위선”과는 모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야 조국이든, 전광훈이든 성경의 가르침이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난 잘못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근거 없는 거짓 절대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견도 존중하면 그만큼 더 빨리 우리 사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글서체

# 민주 시민의 교양이 사회 통합의 기초이다



글: 백중국 교수(기운실 이사장,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지난 주말을 서울에서 보냈다. 서울의 도심은 온통 정치적 히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친구들조차도 집단 히스테리에 휘말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가 마치 두 동강이나 있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나는 한국 시민들의 역동성과 역량을 믿고 있다. 반드시 이 혼란을 극복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다.



지난 9월 28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나라지킴이 교교연합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출 촉구 식발식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갈무리)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사회 통합의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 사회의 통합에는 역시 민주 시민의 교양을 확립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 여기서 민주 시민의 교양이란 민주적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혹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난마와 같이 얽힌 상황을 해결하려면 역시 기초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다.



지난 10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노컷뉴스 갈무리)

### <교양 1>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법치주의라는 교양이다. 민주 사회에서 일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얼마 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 분의 대통령을 파면하고 감옥에 가둔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참 대단한 일이다. 장관 정도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본인이든, 그의 가족이든 당연히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교양 2>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27조가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교양이다. 검찰, 언론사, 정당들이 뭐라 떠들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는 검찰과 언론이 군사 독



재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실을 왜곡했던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이 시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앞으로 조금 더 진실하게 처신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검찰의 기소나 언론의 보도 때문에, 혹은 그들로부터 흘러나온 내부 정보랍시고 사적으로 유포되는 소문 때문에, 공연히 히스테리를 돋우는 것은 민주 시민의 교양에 어긋나는 일이다. 더구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몇몇 유튜브들의 불확실하고 편파적 선동을 맹종한다면 민주 시민으로서 매우 창피한 일이다.

**<교양 3>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면 당연히 이익의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익의 충돌”이라는 교양이다. 이미 김영란 법 토론을 통해 잘 알려졌지만 아직 법제화는 안 되어있다. 예컨대 검찰 개혁을 공언하는 어떤 법무장관 후보 혹은 법무장관이 있을 경우 이 사람의 각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재의 검찰 조직과 무관한 특별검찰 혹은 공직수사처가 그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양을 제도화하기 위한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알고 보면 참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 민주 시민의 교양을 필사적으로 무시하고 혼란을 조성하려는 국내외의 세력들이 항상 어느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혼란은 대체로 어떤 공동체의 과도적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또는 적대국들 사이에서 상대방 국가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극심한 국력 경쟁을 뚫고 자주적인 정상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시민의 교양을 튼튼히 다지는 일이다. 한글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2019년 겨울캠페인

# 심플리-정직

글\_ 박제민 팀장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겨울캠페인 웹자보를 만들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모 단체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캠페인 내용이 참 좋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캠페인은 자발적불편운동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발적불편운동 신동식 본부장님(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희경 위원님(수원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박정우 목사님(광운선교회 대표), 박제우 위원님(기윤실 이사, 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부장), 이학성 위원님(로이드 웨스턴동점 대표)이 매달 한 번씩 모여 자발적불편운동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결과가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입니다.

겨울캠페인을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모였는데 신기하게도 이구동성으로 “정직”을 꼽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정직은 기윤실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기도 해서(다른 두 개는 책임, 정의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직을 추구하는 캠페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살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하면 의외로 단순하고 쉽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에서 “내가 현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계시면서 미래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쉽게 교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직하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캠페인 주제는 “심플리-정직”으로 정했습니다.

심플리 정직 캠페인은 4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누구보다도 나에게 솔직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부당한 이익을 얻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셋째, 가짜뉴스에 현혹되지도 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기 위해 핸드폰 시계로 정직 알람을 맞춰놓고 정직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어느덧 캠페인에 동참하는 교회에 109개 교회로 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한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글 앞에 말씀 드린대로, 캠페인 내용이 참 좋다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발적불편캠페인은 이렇게 협력하여 만들어집니다. **함께**

# 심플리-정직

정직하면 단순하고 쉽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51,10



- 누구보다도 나에게 솔직하세요 -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 부당한 이익을 얻지 마세요 -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 가짜뉴스, 현혹되지도 전하지도 마세요 -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 정직 알람\*을 맞춰놓고 정직했는지 살펴보세요 -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스스로 가장 평안한 시간에 핸드폰 시계로 정직 알람을 정해주세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개인/교회/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cemk.org 페이스북 @giyunsil 인스타그램 giyunsil

※ 교회와 함께 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109개 교회가 함께 합니다.

# 죽음의 밥상과 한 끼 채식

글\_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얼마나 될까?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 병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치명적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연천, 김포, 강화, 강원 철원 등지로 계속 퍼져 지금까지 대략 15만 4,500여 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되었다. 심지어는 기르는 돼지들뿐 아니라 야생 멧돼지들까지 총기 포획되고 있다. 급성형 열병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인데다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생지 반경 3km까지 살처분하고 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때처럼, 발생 즉시 주변 농장의 건강한 돼지들까지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살처분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된다. 일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정해진 지침을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며 처리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 예의다.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허락받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2018년 3월, 경기도 김포 모 처의 돼지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출처: 뉴스1 기사 갈무리)

매년 반복되는 가축들의 희생을 줄이는 일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들 가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희생을 줄이기 위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축들의 질병은 공장식 축산방식과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전적으로 집약화된 데다 효율만을 추구하는 현대 축산방식이 문제다. 밀집한 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고기’나 ‘알’만 생산하게 하면서 면역력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다. 돼지들은 평생 햇빛 한 번 보지 못한 채 사육되다가 먹이가 되고, 암탉들은 움푹달싹하지 못한 채 누워 새끼들에게 젖만 먹이다가 죽는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나고 자란 가축들에게서 얻는 고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을거리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창 9:4) 하신 말씀에 해당하는 먹을거리일 것이다.)<sup>1)</sup>

그러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며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홍보하기 전에, 가축들이 건강히 자라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1㎡에 닭은 9마리, 오리는 2~3마리를 넘지 않아야 각자의 고유 습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적정 공간인 것이다. 사실 조류독감 때 사육 동물의 개체간 거리를 확보한 농장에서는 질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식단이 고기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육식보다는 곡식과 채식 위주의 밥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축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14%나 된다. 식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25%인데, 그 가운데 약 80%가 축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밥상에 올라가는 고기가 늘어난다면 지구 온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결단이 필요하다. 육식의 증가와 공장식 축산의 확대가 기후 위기를 부추기고, 숲을 파괴하고, 식량과 물 부족을 부르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결국 가축들에게 적절히 생육하고 번성할 공간을 제공하고, 가급적 육식보다는 곡식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것은 가축들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하다. 게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메탄가스 문제, 방목지 확보를 위한 거대한 산림 훼손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

1)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먹을거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수백만의 가축들이 반복적으로 살처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기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은 매년 늘어, 2016년 현재 1인당 연간 52.5kg의 고기를 먹고 있다. 소고기를 9.6kg, 돼지고기를 28.4kg, 가금육(닭, 오리)을 14.2kg을 먹는다. 지난 30년 사이 거의 3배나 늘어난 양이다. 반면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 1년에 61kg밖에 먹지 않는다.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입 이후 세워진 '동물복지농장'. (출처: 충북 단양군청)

육식 1인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채식 20인분의 식량과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목마르게 하고 굶주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 기후 위기의 측면에서는 육식의 제한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도 상승에 끼치는 영향력이 100배나 더 큰 메탄가스를 감소시키므로 효과도 즉각적이다.<sup>2)</sup> 그러니 곡식과 채소를 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롬 8:19) 이웃인 지구 생명들은 더 행복해 할 것이다.

내 몸처럼 이웃을 돌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밥상을 차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각자 대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매일매일 채식할 수 없다면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sup>3)</sup>이 제안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단 하루 만이라도 고기 없이 지내는 것도 좋겠다. 7명이 매주 하루씩 채식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1,200여 평의 숲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매일 한 끼를 채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기서부터 처음 밥상(창 1:29)은 회복될 것이고 '하루의 양식'(마 6:11, 출 16:16-20)으로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을 경험할 것이다.

지구적 재앙을 부추기는 '죽임의 먹을거리'가 아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생명의 먹을거리'로 교회와 교우가 정의 밥상을 차리는 일을 확산해 보자. 그 밥을 먹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기후 위기는 당장 막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모두가 골고루 풍성히 사는 세상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한 선택은 소중한 의미가 있다. 더 많은 이들이 가능한 대로 채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와 지구의 생명과 미래가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기도한다. **기실**

2)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대기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 20년 단위에서는 이산화탄소의 104배, 100년 단위에서는 28배의 영향을 끼친다.

3) [http://www.meatfreemonday.co.kr/mfm\\_new/main.html](http://www.meatfreemonday.co.kr/mfm_new/main.html)

# 세습의 길을 터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를 애통해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1:22)

명성교회 위임목사 세습은 불법입니다. 개교회 권한이나 민주적 절차였다고 주장해도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와 일부 세습지지 교인들은 헌법과 판결을 묵살하고 명성교회를 불법 점거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제104회 총회는 지긋지긋했던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순리대로 결정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총회는 권위를 세우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욱먹게 하지 않으며, 심지어 명성교회도 제대로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교회들이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채영남 위원장)가 갑자기 제안한 7인 수습전권위원 구성안을 받아들였고, 7인이 마련한 수습안을 토론 없이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으로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와 일부 세습지지 교인들이 받는 타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2021년이 1월이 되면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헌법위원회(이현세 위원장)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올린 헌법시행규칙 신설 청원안을 1년간 연구토록 하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여주는 화해에 집착하고 대형교회는 살려줘야 한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계한 사람들, 또 그대로 따라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자부할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우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불의와 부정에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실망할 것이고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습을 반대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때가 되면 이를 것입니다.

2019년 9월 26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 찾는 토요일’

글. 김현아 팀장

지난 10월 5일, <나를 찾는 토요일>이 ‘마음산책 : 같이 걸을까’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위원장, 간사들, 함께 걷고자 신청해준 청년들 12명이 서대문 안산 자락길에 모였어요. 적당한 온도와 구름으로 걷기 딱 좋았던 토요일. 사진으로 함께 보실래요? ^^

자락길에 오르기 전,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도 풀고 마음의 긴장도 풀어 봐요.



길벗과 들쭉, 나란히 걸어 봐요. 길옆으로 빼곡한 나무와 풀숲이 우리의 마음산책을 더 포근하게 해주네요. 옆 사람과 대화하느라 힘든지도 모르게 걸음을 이어가요. 최근의 고민거리, 처음 보는 사람이기에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 걸음을 맞추며 가만히 들어주고 받아주는 길벗이 생각보다 든든하고 편하네요.





전망대에서 멀리 보이는 인왕산과 북한산과 인사했어요. 한 시간 쯤 걸었을까, 짠하고 나타난 공터에 앉아 다리를 쉬게 해주고, 달콤한 떡과 바나나를 나누어 먹으며 다른 팀들이 나눈 이야기도 살짝 공유해요. 혹시 어색할까봐 준비했던 질문카드가 필요 없을 만큼 두런두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생각보다 너무 잘 걸어준,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청년들이예요. 이 시간동안 잠시 한 짐 덜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한 청년들과 청년 멘토들, 정말 반가웠어요. 그대들의 마음과 고민과 걸음을 응원합니다. <sup>11월</sup>



“고민만 많고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산책하니 신선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즐겁고 깊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같이 걸으며 나눈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자락길도 정말 예뻐고 대화도 편안해서 좋았어요.”

- 참가한 청년들이 남긴 말 중에서



[LA-서울기윤실 공동포럼 후기]

##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도전과 전망,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과 고민”


글. 박제민 팀장

LA 시간으로 10월 26일(토) 오전 11시, 서울 시간으로는 10월 27일(일) 오전 3시, 캘리포니아 국제대학교 강당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도전과 전망,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과 고민”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습니다. 서울기윤실에서는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이상민 변호사와 사무처 박제민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기조발제는 워싱턴앤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이인엽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분야의 전공자이신 이인엽 교수님은 그동안 북미협상의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신의 입장을 세상에 강요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비판하며 사회를 주도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스스로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름 없이 낮은 자리에서 부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이념적, 흑백논리적 사고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사회운동 본부장인 이상민 변호사님은 발제 내용 중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 대화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부담스럽다면 민간단체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계속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제민 활동가는 국제정치에서 모든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행위라고 전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 또는 정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청년들은 어쩌면 평화보다 정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정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함께 정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LA와 서울기윤실이 “한반도 평화, 기독교 안팎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LA에서 공동포럼이 열렸습니다. LA와 서울은 약 1만 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한 데 모여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부산기운실

## 내부집담회에 다녀오서

글. 김현아 팀장



서울 외 11개 지역에는 각 지역의 배경과 필요에 맞는 기운실 운동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부산 2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부산중앙교회에 모였는데요. 부산의 지역 운동과 하나님나라 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 30여년 기운실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 시대를 해석하는 안목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본부에서도 백종국 이사장, 정병오 공동대표, 김현아 팀장이 참석하여 활발하고 의미있는 기운실 운동을 펼치기 위한 생각을 나누고 왔습니다.

'기운실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의 집담회는 먼저 정병오 공동대표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1987년 당시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인 '민주화'와 '정의'에 대한 일반 시민사회의 열망과 기독 지성인들의 질문과 실천으로 출범한 기운실이 한국 사회의 불의와 억압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묶어내는 역할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높이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운동으로 많은 기독인들의 호응과 참여가 있었고, 한국 교회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며 기운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고도 했습니다. 정병오 공동대표는 기운실을 개인윤리 기반 위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이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 병행단체이며,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교회개혁운동이고, 복음을 기반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독 시민운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방향성으로 중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와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잡아내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헌신된 자원활동가, 준비된 대안을 회원 및 대중들의 손에 잡히는 운동으로 바꾸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감각을 지닌 상근활동가, 마지막으로 조직의 비전과 운동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는 회원들이 함께 하며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현재의 기운실과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창립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손봉호 교수님의 초창기 헌신과

영향력 이후의 공백, 운동의 방향 설정 혼란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임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헌신, 새로운 자원활동가 영입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시도했던 과정들, 시대가 급변하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와 다양한 갈등에 기운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으로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응답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나누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 김현아 팀장이 본부 기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팀 사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와 교회의 과제를 어떻게 운동과 사업으로 만들어 유의미한 변화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지, 기운실 조직과 운동이 가진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교회와 사회의 위기와 시민운동의 변화에 기운실은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할 것인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기운실 운동이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는 일에 여전히 필요한 조직이자 운동이라면 기운실 활동가로 모인 우리 개개인의 소명과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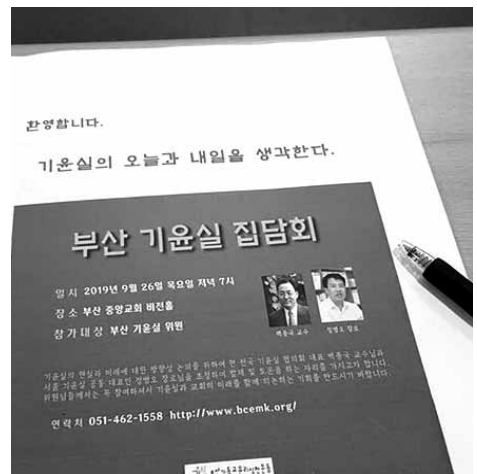
이후에는 백종국 이사장의 진행으로 다함께 기운실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돌아가며 '나에게 기운실 운

동은 무엇이다.'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기회와 위기의 요인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부산 기운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열심이던 청년들이 30여년이 지나 하나님나라운동에 헌신하여 여전히 건강한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배 운동가들을 보며 한편 먹먹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운실 본부의 실무자로서, 후배 활동가로서 지역의 기운실 운동을 위해 보다 더 가까이에서 돕고 동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 온 부산 출장은 몸은 조금 고되었지만 지역 기운실 분들과의 만남, 기운실 운동을 함께 돌아보고 조망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운실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유익했습니다.

부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운동 또한 너무나 응원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전국 방방곡곡의 기운실 운동에 관심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세요! 





##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기

글. 조희준 간사



지난 11월 11일(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회의실에서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주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교회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와 타 교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들을 추천/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상교회는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 **효성중앙교회**(정영수 목사), **광주다일교회**(김의신 목사), **성암교회**(조주희 목사) 총 네 곳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은 1부 예배, 2부 시상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예배에서는 2015년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서남교회의 윤병수 목사가 본문 로마서 13장 8절의 “사랑의 빛을 갠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삶으로 보인다면, 지역 사회를 넘어 민족과 세계 가운데 감동이 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2부는 조흥식 교수(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인사말과 백종국 이사장(기윤실)의 축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조흥식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고, 그것의 목적은 기독교가 좀 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

게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네 교회는 앞으로 더욱 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백종국 이사장은 수상 교회에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교회들의 장점은 장점대로 쓰임 받고, 약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위원회와 시상식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라창호 장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운영위원장)는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진행 경과와 심사기준, 종합 심사평에 대해 보고했고, 함께 수상 교회들의 활동 영상을 시청한 후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는 칭찬 받고, 지역사회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하루였습니다. **11월**



# 회계보고 | 운영성과표 2019 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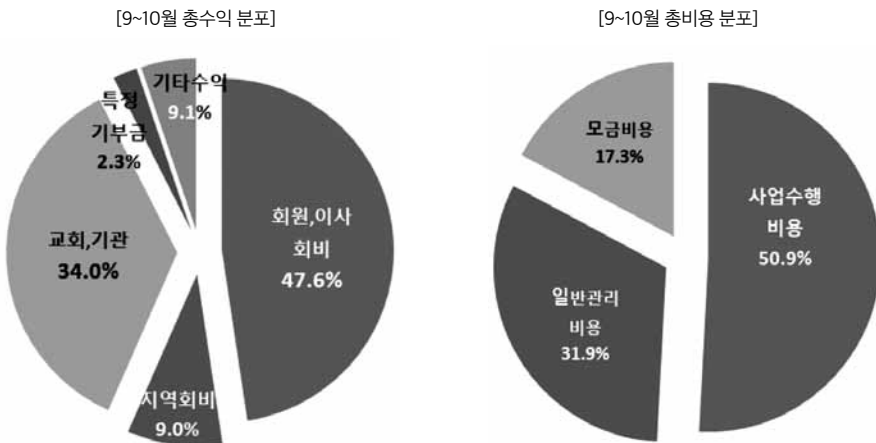
기간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과목	공익목적사업
<b>I. 사업수익</b>	<b>40,937,307</b>
① 회비수익(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23,314,000
② 일반기부금수입(교회/기관후원금)	14,800,000
③ 특정기부금수입(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950,000
④ 기타수익(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1,873,307
<b>II. 사업비용</b>	<b>50,964,584</b>
① 사업수행비용(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25,915,740
② 일반관리비용(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16,255,761
③ 모금비용(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8,793,083
<b>III. 사업외수익</b>	<b>261,960</b>
① 노동부지원금	260,560
② 잡이익	1,400
<b>IV. 사업외비용</b>	<b>-0</b>
<b>수익 총계</b>	<b>41,199,267</b>
<b>비용 총계</b>	<b>50,964,584</b>
<b>당기 순자산의 증(감)</b>	<b>- 9,765,317</b>

\* 201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자산은 9,765,317원 감소했습니다.

\* 2019년 10월 31일 현재 잉여금은 32,826,765원입니다.

\* 수익-비용 분포 그래프



###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19년 09~10월  
후원자명단



## 2019년 09~10월 후원자명단

### 9월

#### 개인 후원금 (582명 / 10,169,000원)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명호중 서동진 손은순 양동진 원종민 (5천) 강민봉 광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학빈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대용 노승아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태규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서호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섭 송철하 신수현 신희선 엄현식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희경 윤성우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윤아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해영 이혁재 이희열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선우 정왕효 조인형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구 최경석 최영애 최승권 최인영 최중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정규 강중윤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현 권아현 기세충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동욱 김동준 김두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수 김미경 김민아 김병일 김상규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운서 김운수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정란 김정미 김중호 김준영 김학동 김하나 김현경 김현태 김형진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효진 김희숙 김희완 김희정 나희량 남궁설 류선민 류종우 문규문석 문정욱 문현주 민영문 박경순 박경준 박민선 박상욱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은하 박의진 박인숙 박재창 박정임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욱 박진희 박태영 박혜윤 박홍래 방형애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용진 백주영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서도원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서상현 손상문 손은정 손현성 손현화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송형목 신선옥 신승혁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안보경 안선옥 안은상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은석 옥성일 왕보현 원원희 원영대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욱 유정윤 유정인 윤두선 윤민영 윤소주 윤신일 윤태호 이경천 이교성 이근무 이금성 이기선 이덕한 이명현 이방욱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은 이용훈a 이용훈b 이운섭 이원영 이월숙 이은성 이의현 이재만 이재민 이재준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욱 이진수 이충학 이태훈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호식 이화영 임미정 인소희 임영제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은 장윤희 장혜경 전병국 전순영 전종갑 정규래 정동혁 정명혜 정상복 정예영 정원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훈 정제하 정호연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우철 조정미 조태래 조희준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미자 천고운 천무현 천선희 최경화 최병승 최상태 최성숙 최영미 최우석 최홍민 최인선 최정석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민근 한민수 한상호 한이수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홍종락 황병구 황성걸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권병희 김명찬 김상인 김철성 김태환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이수지 정화선 (2만) 강병관 권병희 김명찬 김상인 김철성 김태환 배정주 안연희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이수지 정화선 최지영 강은정 강준근 강홍구 고은정 광상배 금은미 김대인 김동조 김명희 김민숙 김상찬 김성천 김세진 김승섭 김영아 김인선 김정백 김정욱 김종필 김진표 김태식 김태훈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남제현 노재숙 도중수 문규영 박경라 박기출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복애 박성일 박승호 박은미 박종민 박관근 박혜리 백경호 서임선 송성현 신국원 신대회 신영현 양낙홍 오세란 오진선 온상원 유지은 유혜영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성영 이세령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은현 이희한 임지웅 이정화 장민규 장영상 정명환 정종목 조현영 차연주 천수연 최동오 최삼욱 최성수 최영석 최은선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관수 홍인중 황재민 (2만5천) 박세진 정세열 (3만) 강석창 강영안 구예리 김강석 김선욱 김성봉 김영철 나영진 노치준 박선영 박수창 박재한 박종명 박종원 박철 배정운 서한홍 손용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용환 우미연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혁경 이준복 이천화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조승희 차정아 최혜민 한성준 홍대식 (4만) 김경미 김경천 김신곤 김경원 손화철 이상규 (5만) 고세훈 고재길 광창대 권수경 권장희 김미숙 김용근 김대근 김혜경 남성태 류은혜 목광수 박중윤 박종진 박찬기 배지수 송인수 신은정 여동명 유혜신 이성근 이원근 이원우 이의용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익명후원자 정문희 조성돈 최광사 최병계 황영철 (5만5천) 조홍식 (6만) 김진우 (7만) 성영은 (10만) 김경래 박원주 박계우 박호용 석종호 송연자 우창록 채홍석 현삼원 (12만) 배종석 이상민 (13만) 조현호 (14만) 유인복 (15만) 손봉호

### 10월

#### 개인 후원금 (563명 / 9,905,000원)

(2천) 권용태 기용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서동진 손은순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광종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학빈 김하나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김희숙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태규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2019년 09~10월  
후원자명단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섭 송철학 신수현 엄현식 오창섭 유창수 유희경 윤성우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용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용아 이종숙 이태희 이하정 이희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선우 정왕호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구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6천) 명호중 박정우  
(7천) 신병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정규 강종윤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현주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아현 기세충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두희 김만옥 김말순 김문수 김미경 김민아 김병일 김상규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예운 김요열 김윤서 김운수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경미 김중호 김준영  
김충환 김학동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정 김홍환 김효진 김희완 김희정 나희량 남궁설 류선민 류종우 문규 문석우 문현주 민영은  
박재춘 박민선 박상욱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윤정 박은하 박의진 박인숙 박재장 박정입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래 방형애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용진 백주영 백현주 변희중 서도원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서상선 손상문  
손은정 손정아 손현성 손현하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송형록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안보경 안선옥 안은상 안정은 안하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은석 옥성일 왕보현 원연희 원영대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옥 유정윤 유정인 유혜원 유두선 윤민영 윤소영 윤신일 윤태호  
이경진 이교성 이근무 이금성 이기선 이남경 이덕환 이방욱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은 이용훈a 이용훈b 이운섭  
이원영 이월숙 이은성 이은현 이의현 이재만 이재민 이재운 이재현 이정민 이정은 이정화 이주환 이지옥 이진수 이충학 이태훈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화영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중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은 장윤희 장혜경 전병국 전종갑 정규장 정규윤 정동혁  
정명태 정상복 정원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홍 정호연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우철 조경미 조준호 조희준 주선경 지상섭  
진미자 천고운 천무현 천선희 최병성 최상태 최성수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철 최정희 최지혜 최현지 추진원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민근 한민승 한상호 한이수 한지연 한형열 허남 허성연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홍종락 황병구 황성결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권병희 김병찬 김상인 김철성 김태환 배정주 안연희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이수지 정성진 정화선 (2만) 강은정 강춘근  
강홍구 고은정 광삼배 금은미 김경미 김대인 김동조 김명희 김명은 김민숙 김상한 김성진 김세진 김승섭 김영아 김인선 김정백 김정옥 김정원  
김종필 김진표 김태식 김태훈 김홍섭 나중주 남재환 남제현 도중수 문규영 박경라 박기출 박득훈 박명근 박명배 박복애 박성일 박승호 박은미  
박종민 박관근 박재희 서인선 설성호 송성현 신국원 신대회 신영현 신창조 양낙홍 오세란 오진선 온상원 유혜영 윤양숙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세령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임지우 자정화 장민규 장영상 정명환 정종득 조현영 차연주 천수연 최동우 최삼욱 최성수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신영 한재량 한진영 홍관수 홍인중 (2만5천) 박세진 정세열 (3만) 강석창 구예리 김강석 김봄이 김선수 김성봉 김영철 김진우 나영진  
노지춘 박신영 박수창 박재한 박종명 박종원 박철 배정운 서한홍 송승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엄영환 우미연 유성오 유재균 윤영석  
윤형영 이창규 이준복 이천희 임성민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조승희 차정아 최종선 최혜원 한성준 홍대식 (4만) 김경천 방은영 손화철 이종규  
(5만) 고재길 광창대 권창희 김미숙 김용근 남성태 류은혜 목광수 박종운 박종진 박찬기 배지수 송연차 송인수 신은정 여동명 유해신 이성근  
이원근 이의용 이철진 이희석 익명후원자 정문희 최광사 최병계 (5만5천) 조홍식 (6만) 손병철 (7만) 성영은 유인복 (8만) 강영안 (10만) 김경래  
박원주 박재우 박호용 백종국 석종호 우창록 조성돈 채홍석 현삼원 (12만) 배종석 이상민 (13만) 조현호 (20만) 손봉호 정병오

2019년 후원 기관 및 교회 (68곳)

(주)마인 (주)소프트이천 (주)가나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성교회 경주교회 고척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교회개혁명신도행동연대 공산교회  
남관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림교회 대주산업 대한기독교사회협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마산재건교회 맘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별무리교회 보성글로벌(주)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새사랑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부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안동교회 연악교회 예인법률사무소  
예장총회사회봉사부 오문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뚝새들넉교회 주안교회복지재단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지비전인터내셔널 청량교회 청운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산교회

신규/재개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16명) 고세훈, 김동욱, 김정만, 김태근, 남성태, 노재욱, 신선욱, 양동진, 이교성, 이명현, 이성영, 이희환, 전순옥, 최영미, 황영철, 황재민  
10월(1명) 최종선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영수증을 대신하여 신습니다. CMS후원의 경우 전원 미출금 된 금액이 차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기윤실 회원님께서서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팀장 070-7019-3756, khash8501@nate.com

- 09/23(월)      예장통합 104회 총회 참관 및 기자회견(포항 기쁨의교회)
- 09/26(목) 19:00   부산기윤실 내부토론회(부산중앙교회)
- 09/30(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4회차(기윤실 회의실)
- 10/01(화) 19:00   부채해방네트워크 모임(기윤실 회의실)
- 10/05(토) 14:00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찾는토요일" 4회차  
(서대문 안산자락길)
- 10/11(금) 07:30   제8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10/23(수) 16:00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의실)
- 10/23(수) 19:00   2020 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문항 검토위원회  
(기윤실 회의실)
- 10/26(토) 11:00   LA-서울기윤실 공동포럼: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도전과  
전망,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과 고민"  
(캘리포니아 국제대학교 강당)
- 10/29(화) 19:00   제10차 부채상담스터디(기윤실 회의실)
- 10/30(수)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5회차(기윤실 회의실)
- 10/31(목) 19:00   제7차 청년위원회(시그니처빌딩 세미나실)
- 11/04(월) 19: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성서한국 회의실)
- 11/08(목) 07:30   제9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11/11(월) 14:0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11/14(목) 18:30   임시이사회(삼일교회)
- 11/18(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6회차(기윤실 회의실)
- 11/19(화) 19:00   2020 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문항 검토위원회  
(기윤실 회의실)
- 11/25(월) 18:30   제8차 청년위원회(기윤실 회의실)
- 11/28-11/29   기독교활동가대회(도봉숲속마을)
- 11/29(금) 14:00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교회와 공간: 공간의 공공성  
과 경건성 사이에서"(경동교회 장공채플)
- 11/30(토) 10:30   교회재정감사워크숍(삼경교육센터 5층 1호실)
- 12/07(토) 13:00   평신도의상상력 워크숍(CLF 비전센터)
- 12/14(토) 18:00   청년파트 "N포세대의 취,존,생,활"(필동 카페비인)
- 12/19(목) 19:00   자발적불편운동 작은 시상식(기윤실 회의실)
- 12/25(수) 15:00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광화문 북측광장)

## 활동스케치

### 크리스천 부채상담스터디 쫓파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9차례의 모임을 마무리하는 쫓파티가 10월 29일 용산 계절방사에서 있었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모른 듯 알 듯 정이 쌓여 헤어짐에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공부한 배움의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목표로 한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은 내년 하반기를 기억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 (최진호 간사)

### 사무처 3분기회



2019년 바빠 달려오다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무처 운영 및 운동 전반을 기획/평가하는 시간을 10월 7일, 31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서울 기윤실 사무처는 다섯 명의 상근간사가 각각의 운동본부를 담당하여 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개별 업무에 집중하다보면, 사무처 전반과 서로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3분기회를 통하여 서로의 업무를 피드백하고 앞으로의 사무처 운영과 활동들에 대해서 환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덧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원분들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윤실도 2020년 성실히 준비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간사)

# 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 소식을 나눕니다.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활동에 관심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부산기윤실

### 1. 사역알림을 위한 매체활용 세미나/유튜브, 애니메이션, 기타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 문의: 가정호 사무처장 010-9182-7419

### 2. 송년회·특강

-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 주제: 러시아 문학과 교회
- 강사: 최동규 교수(부산기윤실 실행위원)
- 문의: 가정호 사무처장 010-9182-7419

## 인천기윤실

### 1. 후원자 명단

- 마포중앙교회
- 양송

## 전국기윤실협의회

지역·실무·연락처·이메일·주소

광주 고경태 총무 / 010-8525-0288 / ktyhbg@hanmail.net /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 010-2018-4116 / nohandsong@gmail.com /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김상호 사무국장 / 010-9970-1291 / blanma@icloud.com /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 010-9182-7419 / mento123@hanmail.net /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울산 오주철 사무총장 / 010-2565-5208 / ojoocheol@hanmail.net /  
(44944)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2길5, 언양영신교회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 010-3996-7023 / iksancemk@naver.com /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 010-8955-2520 / greatc@hanmail.net /  
(1007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275 롯데캐슬아파트 303동 704호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 010-3606-6745 / 123kslee@hanmail.net /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 010-4245-9222 / kyb0191@hanmail.net /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 010-9979-1010 / comnot@hanmail.net /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 010-9452-0214 / hsp0924@hanmail.net /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준)정읍 정종인 집사 / 010-3999-7802 / cibank64@hanmail.net /  
(56194) 전북 정읍시 충정로30 3층

(준)제주 김광중 사무국장 / 010-9744-1477 / hymn4747@hanmail.net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 교회와

# 공간

신학자가 본 교회 건축

곽호철(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건축가가 본 교회 건축

홍기협(자오개마을 대표건축가)

공간의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성경이 옵션이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를 돌아봅니다

2019.11.29.금. 오후 2~5시 / 경동교회 장공채플(선교관 4층)

N포세대라 불리며 기회와 희망을 빼앗긴 것만 같은 청년들은  
정해진 길이 아닌 다양한 모양으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다함께 모여 서로의 취존생활을 공유하고 선물도 받아가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봅시다!

<청년파티>  
N포세대의 취존생활

#맨손으로와서배빵뽕뽕손가락득히가게될파티  
#청춘을즐기거나만의방식함께이야기해보요  
#곧연말인데기운실청년파티정도는괜찮잖아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9시  
필동 카페바인(충무로역)

문의 청년운동본부 김현아 팀장 02-794-6200 cemk@hanmail.net